Asian Tax Journal Vol.27, No.3 (October 2026) pp.367－395 https://doi.org/10.35850/KJTA.27.3.12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ISSN 3140－6092

#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 : 회계법인 규모에 따른 차별적 효과

#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Audit Quality
## : Differential Effects by Audit Firm Size

김현아* · 황문호**
Hyun Ah Kim · Mun Ho Hwang

〈요 약〉

본 연구는 감사인의 전체 감사시간 중 품질관리 검토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사품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감사인 등록제와 품질관리 감리가 강화되면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감사시간이나 인력 규모 등 양적 투입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절대적 수준이 아니라 전체 감사과정에서 품질관리 검토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에 주목하여, 해당 비중과 감사품질이 갖는 관련성을 Big4와 non-Big4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9,539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을 규모별로 구분한 Big4 표본에서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높을수록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이 나타나고, non-Big4 표본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Big4의 경우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상대적 증가가 감사품질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고위험 피감사기업에 대한 대응적 자원 배분의 성격임을 시사한다. 반면 non-Big4에서는 품질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품질

* 제1저자(First Autho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 Education, kukolo@koreatech.ac.kr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mhhwang@khu.ac.kr

Received 8 April 2026 Revised 4 July 2026 Accepted 7 July 2026

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증가는 재량적발생액 감소와 관련되어 감사품질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단순한 품질 투입 지표로 해석되기 어렵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체계와 피감사기업의 감사위험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품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검토시간이나 인력 규모와 같은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자원이 어떠한 감사위험에 배분되며 실제 감사품질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 회계법인 품질관리, Big4, non-Big4, 감사품질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in total audit hours and audit quality, and investigates whether this association differs by audit firm size.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External Audit Act in 2018, the auditor registration system and quality control inspections have been strengthened, increasing attention to audit firms' quality control systems. However, prior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quantitative inputs such as audit hours or the size of quality control personnel.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the relativ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within the overall audit process, rather than the absolute amount of such hours, and analyzes its association with audit quality separately for Big4 and non-Big4 audit firms.

Using 9,539 firm-year observations of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20 to 2024, this study find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audit quality in the full sample. However, the results differ by audit firm size. In the Big4 sample,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bsolute value of 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whereas in the non-Big4 sample, the association is significantly negativ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r Big4 audit firms, the marginal effect of additional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on audit quality may be limited, or that higher review-hour proportions may reflect a responsive allocation of resources to high-risk clients. In contrast, for non-Big4 audit firms,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lower discretionary accruals, suggesting a potential improvement in audit quality as quality control systems are strengthened.

This study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should not be interpreted merely as a simple input measure for audit quality. Rather, its meaning may vary depending on the maturity of an audit firm's quality control system and the risk characteristics of its clients. The findings als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suggesting that, i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quality control systems, regulators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review hours or personnel, but also how such resources are allocated to audit risks and whether they ultimately contribute to improvements in audit quality.

**<Key words>** Relative 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ccounting Firm Quality Control, Big4, non-Big4, Audit Quality

# Ⅰ. 서 론

본 연구는 전체 감사시간 중 품질관리 검토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사품질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그 관계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후, 표본을 Big4와 non-Big4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국내 회계법인은 감사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관리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관련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왔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강화하고, 2022년부터는 감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실질적인 품질관리 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품질관리 검토는 감사팀이 수행한 감사절차와 판단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하는 핵심 통제 장치이다. 따라서 품질관리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배분될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수는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절대량이 아니라 전체 감사시간 중 품질관리 검토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다. 이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증가가 다른 감사활동에 배분되는 시간 비중의 감소를 동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감사품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또는 감사업무 내 시간 배분 구조 속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자원 투입인 동시에 감사위험에 대한 대응의 결과일 수 있다. 배길수 등(2015)은 감사인이 인지한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품질관리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배분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높은 감사업무가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피감사기업을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 검토가 재무제표 오류나 이익조정을 일정 부분 억제하더라도, 피감사기업의 내재적 위험이나 재무보고 특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재량적발생액 간에 양(+)의 관련성이 관찰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단순한 투입과 성과의 관계로 해석하기보다, 감사위험에 따른 자원 배분 및 내생성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 체계, 감사방법론, 인적 자원의 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도 감사인 유형별로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Big4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감사절차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Francis 2011 ; Che et al. 2020). 또한 Big4는 소송위험과 평판비용에 민감하므로 감사품질 관리에 보다 높은 유인을 가진다(DeAngelo 1981 ; Lennox 1999). 이러한 환경에서는 추가적인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증가가 감사품질을 크게 개선하는 한계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non-Big4의 경우

품질관리 체계의 성숙도와 자원 운용 방식이 Big4와 다를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 검토가 감사업무 전반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효과 역시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표본 분석에 더해 Big4와 non-Big4를 구분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이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9,539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QCAHR*)과 감사품질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계법인 규모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회계법인(Big4)의 경우 *QCAHR*이 높을수록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PMADA*)이 증가하는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중소형회계법인(non-Big4)에서는 *QCAHR*과 *PMADA* 간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Big4에서 관찰된 결과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증가가 곧바로 감사품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Big4는 이미 체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과 표준화된 감사절차를 갖추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한계적 품질 개선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QCAHR*이 높은 감사업무는 감사인이 사전적으로 높은 위험을 인지한 피감사기업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감사위험이 높을수록 감사노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관된다(Bell et al. 2001 ; Bell et al. 2008). 따라서 Big4의 결과는 집중적인 품질관리 검토에도 불구하고 감사품질이 낮다고 단정하기보다, 고위험 피감사기업에 대한 자원 배분, 감사품질 대용치의 특성, 그리고 내생성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non-Big4의 결과는 품질관리 체계의 강화가 실질적인 감사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안착하는 단계에 있는 조직일수록, 감사업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에 도달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품질관리 부서의 일차적인 목표가 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품질관리 검토는 회계법인의 인적 역량과 시스템의 성숙도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게 발현된다. 즉, Big4는 안정화된 시스템 위에서 고위험군에 자원을 집중하는 위험관리의 양상이 보이는 반면, non-Big4는 체계를 강화하며 전체적인 감사 수준을 견인하는 품질 개선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역량이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을 확인하고자,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과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을 각각 상호작용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재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담인력 비중의 상호작용 효과는 Big4와 non-Big4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Big4의 경우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이 높을 때 검토시간 투입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고위험 피감사기업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되었던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된 자원의 질적 결합이 지니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Big4의 품질관리 검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위험에 대응하는 신호적 성격을 띠지만, 숙련된

인적 자원에 기반한 높은 품질관리 역량과 결합될 때는 피감사기업의 내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실질적인 감사품질 향상을 견인하는 능동적 기제로 전환됨을 실증한다. 반면, 전담인력 비중(양적 지표)보다 인건비 비중(질적 지표)에서만 이러한 시너지가 관찰된 점은, 단순히 인원을 확충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의 실질적인 투입이 품질관리 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동인임을 의미한다.

초도감사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주된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초도감사 표본을 배제할 경우 Big4의 양(+)의 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Big4의 품질관리 투입이 모든 피감사기업에 균일하게 이루어지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상황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추가적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 보고 여부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Big4의 경우 *QCAHR*이 높을수록 계속기업 불확실성 공시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고위험 피감사기업에 대해 감사인이 적극적으로 식별하여 보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측정치를 다양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을 이용하거나, 독립변수를 감사와 검토를 합산한 총 시간 기준의 비중, 또는 총 품질관리시간의 자연로그 값으로 대체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주요 결과는 일관되게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절대적 투입 규모가 아니라 전체 감사시간 중 품질관리 검토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 연구가 주로 총감사시간, 직급별 감사시간 또는 감사위험에 따른 감사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감사품질을 설명하였다면, 본 연구는 감사업무 내 시간 배분 구조에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갖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Big4와 non-Big4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단순한 품질 투입 지표가 아니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체계와 피감사기업의 위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품질관리 제도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확대가 감사품질 향상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가 회계법인의 규모와 품질관리 시스템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품질관리 인력이나 검토시간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자원이 어떠한 감사위험에 배분되고 실제 감사품질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외부감사법 이후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non-Big4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 충족을 넘어 품질관리 절차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도출하고,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연구방법을 기술한다. 제Ⅳ장에서는 가설 검증 결과를 보고하고, 제Ⅴ장에서는 연구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한계점을 논의한다.

# Ⅱ.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설계

## 1. 품질관리 검토

회계감사기준서 220「재무제표감사의 품질관리」에 따르면,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그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품질관리검토는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 감사팀의 주요 판단과 결론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감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오류와 품질위험을 완화하는 사전적 품질통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품질관리 검토시간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적 검토노력인 동시에, 감사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증가하는 대응적 투입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류승우 등 2015 ; 배길수 등 2015). 이는 품질관리 검토시간이 단순한 절차적 투입이 아니라 감사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강화되는 품질통제 활동임을 시사하며, 최근 연구들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Song and Kim(2021)은 품질관리 검토시간이 감사인 교체 가능성과 관련되며 감사인이 인식한 감사위험의 대리변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Kim et al.(2024)은 CEO 교체와 같은 감사위험 상황에서 품질관리 검토시간이 증가함을 보임으로써 이를 감사위험에 대한 반응적 노력의 반영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Lee and Hwang(2024)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품질관리 검토시간이 투자자에게도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절대적 규모가 아니라 총 감사시간 대비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비중에 주목한다. 검토시간이 품질관리 활동에 투입된 절대적 양을 나타낸다면, 검토시간 비중은 전체 감사노력 중 품질관리 검토가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 비중은 감사인이 전체 감사자원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품질관리 검토에 배분하였는지를 나타내므로, 단순히 총 감사시간이 많은 경우와 품질관리 검토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우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은 감사위험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전체 감사업무 내에서 품질관리 기능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포착하는 지표로서 감사품질의 측정에 있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감사인 규모와 감사품질

감사인 규모는 감사품질을 설명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DeAngelo(1981)는 대형 감사인일수록 특정 고객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낮고 감사실패 시 부담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할 유인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실증한 Becker et al.(1998)은 Big6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으며, Francis and Yu(2009)는 Big4 내에서도 오피스 규모가 클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감사인 규모와 감사품질 간의 양(+)의 관계가 감사인 자체의 역량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Chaney et al.(2004)과 Lawrence et al.(2011)은 Big4와 non-Big4 간 감사품질 차이가 감사인 고유의 품질 차이뿐 아니라 피감기업의 규모, 복잡성, 위험수준 등 고객 특성 및 감사인 선택의 내생성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감사인 규모별 효과를 해석할 때 피감기업 특성의 체계적 차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결과가 보고된다. 황인태 등(2009)은 Big4의 감사품질 우수성이 피감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성립하지는 않으며, 감사인-피감기업 간 적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윤성과 최현정(2014)은 감사인 선택의 내생성을 통제한 후에는 대형회계법인이 재량적 발생액은 낮지만 실제이익조정은 오히려 높게 나타남을 보여, 대형회계법인이 항상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한다는 기존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형회계법인이 일부 대형회계법인보다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 규모와 감사품질의 관계가 상장시장 및 피감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사인 선택의 내생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Big4와 non-Big4 간 품질관리 체계와 감사업무 수행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감사인 규모와 관련된 내생성 문제는 Big4를 선택하는 기업과 non-Big4를 선택하는 기업 간에 규모, 복잡성, 위험수준 등 피감사기업 특성이 체계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Big4와 non-Big4를 하나의 표본에서 함께 분석할 경우, 품질관리 검토비중의 효과가 감사인 규모별 특성 차이 또는 피감사기업 특성 차이와 혼재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본을 감사인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내생성 우려와 해석상의 혼재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표본 구분만으로 피감사기업 특성 차이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기업특성 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 3. 품질관리 검토와 감사품질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체계는 전사적 통제 환경과 개별 업무 수준의 관리로 이원화된다.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업무 수행을 제외한 리더십, 윤리, 인적자원 등은 회계법인 내부의 지배구조와 환경적 토대를 형성한다.[1] 그러나 감사품질의 실질적인 확보는 개별 수임 건별로 수행되는 구체적인 검증 절차에 의존한다. 따라서 감사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업무팀의 유의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품질관리 검토시간은 전사적 시스템이 개별 감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이자 감사품질의 결정요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 요소는 ①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④ 인적자원, ⑤ 업무의 수행, ⑥ 모니터링이다.

이와 일관되게 선행연구는 품질관리 시간의 투입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김용수와 전규안(2016)은 감사품질에 대한 직급별 투입시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품질관리 시간이 길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Big4에서 나타나고, 총 감사시간보다 기말감사에서 관찰되어 품질관리 검토의 효과가 감사인 특성과 감사단계에 따라 차별적임을 보여준다.

류승우 등(2015)은 특정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내부심리시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내부심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수록 음(−)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 석완주와 박경호(2021)는 품질관리 전담자를 보유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양호하고, 전담자 제도 도입 후 감사품질이 개선된다는 실증결과를 통해 감사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전담자의 존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최근 연구로는 라경흠(2024)이 품질관리실 인력 중 7년 이상 경력 회계사 비중이 높거나, 품질관리실 인건비 비중이 클수록 감사품질이 양호하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서계원과 이재경(2025)은 신외감법 도입 후 품질관리실의 충실화가 이전 대비 품질관리 검토시간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품질관리 시간 증가가 감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의 품질관리 시간 증가율은 상당히 높았으나, 품질관리 시간의 증가가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규모를 고려한 분석에서 Big4의 피감사기업 중 1천억 미만 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인 등록제 도입 후 Big4가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감사품질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배길수 등(2015)은 감사위험에 대응하여 감사인이 투입시간 또는 감사보수를 증가시키거나, 전문성 높은 회계사를 투입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감사인이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을 증대시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기 및 당기 감사위험(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과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밝혀 감사인이 감사위험에 대응하여 품질관리 투입시간 비중도 높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높은 감사위험에 대해 시간당 보수가 낮아진다는 실증결과는 감사인이 수익성보다 감사위험 관리를 우선시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품질관리 자원 투입의 중요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절대적 규모나 전담 인력의 유무 등 외형적인 투입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또한,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상대적 비중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배길수 등 2015)의 경우에도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제도 변화 이후의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신외부감사법은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감사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신외감법이

전반적으로 재무보고 품질을 높이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보고하나(조연주 등 2022 ; 김범준 2023), 그 효과가 감사인 규모나 제도 유형에 따라 차별적이므로 감사인 규모와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동현 등 2025).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회계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됨에 따라, 검토시간의 절대적 규모보다 총 감사시간 대비 품질관리 검토시간의 비중이 갖는 질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제도 변화 이후 강화된 품질관리 환경을 바탕으로 검토 시간 비중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4. 연구가설

일반적으로 Big4는 non-Big4에 비해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 체계적인 교육훈련, 표준화된 감사방법론, 그리고 강력한 유인 및 모니터링 체계에 기인한다(DeFond and Zhang 2014 ; Che et al. 2020). 또한 Big4는 소송위험과 평판비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와 품질관리 절차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할 유인이 크다(DeAngelo 1981 ; Lennox 1999). 이와 더불어 파트너 보상 및 내부 모니터링 체계 역시 감사품질과 위험관리성과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감사인이 단기적 경제적 유인만을 고려하여 품질을 저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Knechel et al. 2013).

국내 제도 환경에서도 Big4와 non-Big4 간 품질관리 체계의 차이는 확인된다.[2]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회계법인 전반의 품질관리 인력과 내부 시스템이 강화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는 회계법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non-Big4의 평균 지적 건수는 Big4보다 높게 나타나 품질관리 체계의 성숙도 측면에서 Big4가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시사한다.[3] 다만 최근에는 non-Big4도 상장법인

2) Big4 중 삼일은 2007년부터, 안진과 삼정은 2008년부터, 한영은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미국 PCAOB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3)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 (단위 : 건, %)

| 분류 | 전체 | | 리더십 책임 | | 윤리적 요구사항 | | 업무의 수용과유지 | | 인적자원 | | 업무의 수행 | | 모니터링 | |
|---|---|---|---|---|---|---|---|---|---|---|---|---|---|---|
| | 평균 건수 | 비율 | 평균 건수 | 비율 | 평균 건수 | 비율 | 평균 건수 | 비율 | 평균 건수 | 비율 | 평균 건수 | 비율 | 평균 건수 | 비율 |
| 전체 | 11.5 | 100.0 | 1.3 | 11.4 | 1.6 | 14.1 | 1.4 | 12.0 | 2.3 | 19.6 | 3.4 | 29.3 | 1.6 | 13.6 |
| 가군 | 5.8 | 100.0 | 0.5 | 8.7 | 1.0 | 17.4 | 1.0 | 17.4 | 1.0 | 17.4 | 2.0 | 34.8 | 0.3 | 4.3 |
| 나군 | 13.7 | 100.0 | 1.7 | 12.2 | 1.7 | 12.2 | 1.7 | 12.2 | 2.7 | 19.5 | 4.0 | 29.3 | 2.0 | 14.6 |
| 다군 | 12.9 | 100.0 | 1.6 | 12.2 | 1.7 | 13.3 | 1.4 | 11.1 | 2.7 | 21.1 | 3.4 | 26.7 | 2.0 | 15.6 |
| 라군 | 15.0 | 100.0 | 1.5 | 10.0 | 2.5 | 16.7 | 1.5 | 10.0 | 2.5 | 16.7 | 5.0 | 33.3 | 2.0 | 13.3 |

감사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강화된 감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왔으며,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서도 non-Big4의 개선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다.[4)]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감사품질과 갖는 관련성은 Big4와 non-Big4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Big4는 이미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감사절차와 기존 품질관리 체계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높아지더라도 그것이 추가적인 감사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높은 감사업무는 감사인이 사전적으로 높은 위험을 인지한 피감사기업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배길수 등 2015). 이 경우 품질관리 검토가 이익조정을 일정 부분 억제하더라도, 피감사기업의 내재적 위험이나 재무보고 특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감사품질 대용치상으로는 개선효과가 관찰되지 않거나 오히려 낮은 감사품질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non-Big4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덜 성숙한 품질관리 체계로 인해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측면에서 Big4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non-Big4도 신외감법 시행 이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감독당국의 실질 운영 감시에 대응하면서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및 정착 단계에서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증가가 감사절차의 충실성 제고와 오류 억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on-Big4에서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품질이 개선되는 방향의 관련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시스템 성숙도와 자원 운용 방식에 따라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Big4와 non-Big4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1] Big4의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은 감사품질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거나 음(-)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non-Big4의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은 감사품질과 양(+)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

* 공개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제외
자료출처 :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1.25.)

4) 2024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Big4와 non-Big4의 평균 지적 건수는 각각 6개와 9.2개로 최초 공개한 시점에 비해 non-Big4의 개선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6.2.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 Ⅲ. 표본과 연구모형

## 1. 연구표본

본 연구는 등록회계법인의 상장회사 감사가 적용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적정의견을 받은 12월 결산, 비금융업을 표본으로 이용하였다. 품질감리 검토시간과 총 감사시간은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 실시내용에서 수작업으로 추출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은 DataGuide에서 추출하였다. 최종 표본은 9,539 기업-연도였으며, 연도별, 산업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Distribution by Year and Industry

| [Panel A] Distribution by Year | | | | | | |
|---|---|---|---|---|---|---|
| Year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Total |
| N | 1,732 | 1,806 | 1,921 | 1,992 | 2,088 | 9,539 |

| [Panel B] Distribution by Industry | | | | | | | |
|---|---|---|---|---|---|---|---|
| Industry | Manufacturing | Information& Communication | Science& Technology | Wholesale& Retail | Construction | Othres | Total |
| N | 6,410 | 1,221 | 707 | 698 | 250 | 253 | 9,539 |
| Percentage(%) | 67.20 | 12.80 | 7.41 | 7.32 | 2.62 | 2.65 | 100.00 |

## 2. 연구모형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김용수와 전규안 2016 ; 서계원과 이재경 2025). 본 연구는 기업 특성치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한다. 고정효과 모델 하에서는 기업 고유의 오차항에 산업적 특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개별 기업 효과와 산업 효과가 중첩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 더미를 추가할 경우 발생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및 모델의 과대식별(over-identification)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 더미를 제외한 최종 모형을 구축하였다.[5)]

5)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chi^2(13)=1{,}838.84$, $p<0.001$로 나타나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MADA_{i,t} = \beta_0 + \beta_1 QCAH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LIQ_{i,t} + \beta_5 GRW_{i,t} + \beta_6 ROI_{i,t} + \beta_7 LAR_{i,t} + \beta_8 FOR_{i,t} + \beta_9 absTAccl_{i,t} + YD + \epsilon_{i,t} \quad (1)$$

*PMADA* : Kothari et al.(2005)의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 ;
*QCAHR* : 품질관리 검토시간/총 감사시간 ;
*SIZE* : 자산총계의 자연로그 값 ;
*LEV* : 부채총계/자산총계 ;
*LIQ* : 유동자산/유동부채 ;
*GRW* : 매출액 성장률 ;
*ROI* : 영업이익/매출액 ;
*LAR* : 대주주지분율 ;
*FOR* : 외국인지분율 ;
*absTAccl* : 전기 총발생액의 절대값 ;
*YD* : 연도더미.

종속변수는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PMADA*)을 이용하였으며(Kothari et al. 2005), 관심변수인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QCAHR*)은 감사 업무에 투입된 총 품질관리 검토시간을 전체 감사시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beta_1$의 방향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은 높은 *QCAHR*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나타내고, 양(+) 또는 유의하지 않은 계수 값은 식별된 높은 감사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을 의미한다. 특히 회계법인 규모별로 Big4는 이미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상시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토시간 투입은 주로 피감사기업의 내재적 위험을 반영하는 위험 대응 신호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스템 안착 단계에 있는 non-Big4의 높은 *QCAHR*은 종전의 미비했던 품질관리 기능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감사품질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포함하였다(김용수와 전규안 2016 ; 서계원과 이재경 2025). 구체적으로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재무위험은 부채비율(*LEV*)과 유동비율(*LIQ*)을 추가하여 통제하였다. 성장성과 수익성을 통제하기 위해 각각 매출액 성장률(*GRW*)와 영업이익률(*ROI*)을 포함하였으며, 지배구조는 대주주지분율(*LAR*)과 외국인지분율(*FOR*)로 통제하였다. 총발생액의 반전효과는 전기 총발생액의 절대값(*absTAccl*)으로 통제하였고, 연도별 영향은 연도더미를 포함하여 통제하였다.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변수의 상・하 극단치 1%를 조정(winsorize)하여 이용하였다.

# Ⅳ. 실증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변수들의 주요 기술통계량을 제시한 <Table 2>를 살펴보면, *PMADA*의 평균과 중위수가 각각 0.070과 0.044로 나타나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지만 선행연구와 일관되며(배길수 등 2015), *QCAHR*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022와 0.020으로 나타나 대체로 고른 분포임을 알 수 있다. *QCAHR*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005와 0.064로 나타나 감사 건별로 투입되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9,539)

| Variables | Mean | Std. Dev. | Min | 25% | 50% | 75% | Max |
|---|---|---|---|---|---|---|---|
| *PMADA* | 0.070 | 0.080 | 0.001 | 0.019 | 0.044 | 0.090 | 0.451 |
| *QCAHR* | 0.022 | 0.011 | 0.005 | 0.013 | 0.020 | 0.027 | 0.064 |
| *SIZE* | 19.209 | 1.320 | 16.884 | 18.294 | 18.987 | 19.872 | 23.689 |
| *LEV* | 0.354 | 0.197 | 0.024 | 0.191 | 0.344 | 0.495 | 0.836 |
| *LIQ* | 3.227 | 4.542 | 0.168 | 1.038 | 1.707 | 3.345 | 31.106 |
| *GRW* | 0.101 | 0.444 | −0.725 | −0.094 | 0.043 | 0.190 | 2.859 |
| *ROI* | −0.085 | 0.755 | −5.852 | −0.018 | 0.038 | 0.099 | 0.719 |
| *LAR* | 39.475 | 16.081 | 8.020 | 27.820 | 38.710 | 50.740 | 76.530 |
| *FOR* | 5.936 | 9.010 | 0.000 | 0.980 | 2.260 | 6.600 | 49.150 |
| *absTAccl* | 0.078 | 0.089 | 0.001 | 0.022 | 0.050 | 0.098 | 0.518 |

1) Variable definitions : *PMADA*=absolute value of performance-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Kothari et al. 2005) ; *QCAHR*=quality control review hours / total audit hours ; *SIZE*=natural logarithm of total assets ; *LEV*=total liabilities / total assets ; *LIQ*=current assets / current liabilities ; *GRW*=sales growth rate ; *ROI*=operating income / sales ; *LAR*=ownership by the largest shareholder ; *FOR*=foreign ownership ; *absTAccl*=absolute value of prior-year total accruals.

<Table 3>은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QCAHR*는 *PMADA*와 양(+)의 관련성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LIQ*)이 큰 경우에 *QCAHR*이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규모(*SIZE*)가 크고, 수익성(*ROI*)이 양호하며 지배구조(*FOR*)가 좋을수록 *QCAHR*이 유의하게 낮고, *LEV*도 *QCAHR*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Pearson Correlations (N=9,539)

| *Variables* | *PMADA* | *QCAHR* | *SIZE* | *LEV* | *LIQ* | *GRW* | *ROI* | *LAR* | *FOR* | *absTAccl* |
|---|---|---|---|---|---|---|---|---|---|---|
| *PMADA* | 1.000 | | | | | | | | | |
| *QCAHR* | 0.015<br>(0.146) | 1.000 | | | | | | | | |
| *SIZE* | −0.153<br>(0.000) | −0.145<br>(0.000) | 1.000 | | | | | | | |
| *LEV* | 0.105<br>(0.000) | −0.071<br>(0.000) | 0.158<br>(0.000) | 1.000 | | | | | | |
| *LIQ* | −0.029<br>(0.004) | 0.074<br>(0.000) | −0.152<br>(0.000) | −0.539<br>(0.000) | 1.000 | | | | | |
| *GRW* | 0.083<br>(0.000) | 0.010<br>(0.311) | 0.003<br>(0.768) | 0.024<br>(0.019) | −0.021<br>(0.040) | 1.000 | | | | |
| *ROI* | −0.110<br>(0.000) | −0.065<br>(0.000) | 0.218<br>(0.000) | −0.047<br>(0.000) | −0.091<br>(0.000) | 0.017<br>(0.100) | 1.000 | | | |
| *LAR* | −0.176<br>(0.000) | 0.001<br>(0.928) | 0.202<br>(0.000) | −0.072<br>(0.000) | 0.040<br>(0.000) | −0.031<br>(0.003) | 0.214<br>(0.000) | 1.000 | | |
| *FOR* | −0.063<br>(0.000) | −0.055<br>(0.000) | 0.472<br>(0.000) | −0.068<br>(0.000) | −0.009<br>(0.386) | 0.023<br>(0.028) | 0.089<br>(0.000) | −0.053<br>(0.000) | 1.000 | |
| *absTAccl* | 0.257<br>(0.000) | 0.023<br>(0.027) | −0.161<br>(0.000) | 0.105<br>(0.000) | −0.045<br>(0.000) | 0.061<br>(0.000) | −0.144<br>(0.000) | −0.157<br>(0.000) | −0.082<br>(0.000) | 1.000 |

1)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 values in parentheses are p-values.

## 2.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본 연구의 가설인 감사인 규모별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열 (1)은 전체 표본을 분석한 결과이고, 열 (2)와 (3)은 각각 Big4와 non-Big4 표본을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4〉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Audit Quality[6)]

$$PMADA_{i,t} = \beta_0 + \beta_1 QCAH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LIQ_{i,t} + \beta_5 GRW_{i,t} + \beta_6 ROI_{i,t} + \beta_7 LAR_{i,t} + \beta_8 FOR_{i,t} + \beta_9 abs\,TAccl_{i,t} + YD + \epsilon_{i,t}$$

| Variables | Dependent Variable = *PMADA* | | | | | |
|---|---|---|---|---|---|---|
| | (1) Total | | (2) Big4 | | (3) non-Big4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QCAHR*** | **−0.064** | **−0.68** | **0.291** | **1.97**** | **−0.341** | **−2.45**** |
| *SIZE* | 0.014 | 1.97** | 0.026 | 2.23** | 0.013 | 1.44 |
| *LEV* | 0.098 | 6.50*** | 0.103 | 3.51*** | 0.088 | 4.47*** |
| *LIQ* | 0.002 | 3.71*** | 0.002 | 2.09** | 0.001 | 2.62*** |
| *GRW* | 0.009 | 2.97*** | 0.002 | 0.39 | 0.010 | 2.57** |
| *ROI* | −0.003 | −0.71 | 0.005 | 0.56 | −0.003 | −0.62 |
| *LAR* | −0.001 | −2.31** | 0.000 | 0.04 | −0.001 | −2.29** |
| *FOR* | 0.000 | 1.35 | 0.000 | 0.63 | 0.001 | 1.50 |
| *absTAccl* | −0.071 | −4.80*** | −0.131 | −4.62*** | −0.077 | −4.41*** |
| *Constant* | −0.199 | −1.47 | −0.494 | −2.10** | −0.160 | −0.93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2$ | 0.036 | | 0.050 | | 0.034 | |
| F-value | 12.414*** | | 7.092*** | | 8.209*** | |
| N | 9,539 | | 3,423 | | 6,116 | |

1)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회계법인 규모별 감사품질의 기초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Big4의 감사품질이 non-Big4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Big4의 *PMADA* 평균은 0.063으로, non-Big4의 0.074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t=7.04$, $p<0.01$). 이러한 결과는 Big4가 보유한 고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과 풍부한 인적 자원이 실질적인 감사 품질 우위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규모별 품질관리 수준의 차별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적 증

6) 별도의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계속감사기간을 추가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재실시한 경우에도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유지되었으며, 계속감사기간의 계수 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초 통계량의 차이를 바탕으로 <Table 4>의 결과를 살펴보면, 열 (1)의 전체 표본 분석에서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QCAHR*)과 감사품질(*PMADA*)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계법인 규모별로 표본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Big4 분석 결과인 열 (2)에서는 *QCAHR*의 계수 값이 0.291(t=1.97)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열 (3)의 non-Big4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Big4에서 관찰된 *QCAHR*과 *PMADA*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은 본 연구의 핵심변수가 시간의 절대량이 아닌 비중임을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품질관리 검토비중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다른 감사활동에 배분되는 시간 비중의 감소를 수반하며, 이미 고도화된 품질관리 체계를 보유한 Big4 환경에서는 감사품질에 대한 한계 기여도가 품질관리 검토보다 실질적 감사 활동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Big4의 결과는 추가적인 품질관리 검토비중의 증가가 가져오는 한계 감사품질 향상 효과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배길수 등(2015)은 감사인이 인지한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품질관리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Big4에서 품질관리 검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 건은 감사위험이 높은 피감사기업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표본 구성상의 특성이 양(+)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회귀모형의 인과 방향과 구분되는 맥락적 해석이므로 추가분석을 통한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초도감사를 제외한 추가분석에서 Big4의 양(+)의 관련성이 사라짐을 확인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반면, non-Big4 그룹에서 관찰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은 품질관리 검토비중의 증가가 실질적인 감사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Big4와 달리 non-Big4는 업무팀의 평균적 감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품질관리 검토자의 독립적 검토가 업무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탐지하고 시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신외감법 도입을 계기로 품질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과정에 있는 non-Big4에서는 검토비중의 증가가 감사절차의 충실성 제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Big4와 non-Big4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두 집단 간 품질관리 체계의 성숙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품질관리 검토가 수행하는 기능적 역할이 감사인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한 분석결과

개별 회계법인의 인적 자원과 조직적 특성으로 대변되는 품질관리 역량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석완주와 박경호 2021 ; 라경흠 2024). 따라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 역시 회계법인이 보유한 인적 자원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과 전담인력 비중을 상호작용 변수로 포함하여 품질관리 자원의 투입 효과가 회계법인의 내부 역량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5〉 Analysis Results Considering Quality Control Capability

$$PMADA_{i,t} = \beta_0 + \beta_1 QCAHR_{i,t} + \beta_2 HQCSal(HQCExc)_{i,t} + \beta_3 QCAHR^{*} HQCSal(HQCExc)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_{i,t}} + \beta_6 LIQ_{i,t} + \beta_7 GRW + \beta_8 ROI_{i,t} + \beta_9 LAR_{i,t} + \beta_{10} FOR_{i,t} + \beta_{11} abs\,TAccl_{i,t} + YD + \epsilon_{i,t}$$

[Panel A] Results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Personnel Costs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QCAHR*** | **0.946** | **3.79*****| **−0.268** | **−1.34** |
| ***HQCSal*** | **0.029** | **3.56*****| **0.000** | **0.08** |
| ***QCAHR*HQCSal*** | **−1.044** | **−3.24*****| **−0.106** | **−0.46** |
| *SIZE* | 0.027 | 2.25** | 0.013 | 1.44 |
| *LEV* | 0.103 | 3.52*** | 0.088 | 4.46*** |
| *LIQ* | 0.002 | 2.06** | 0.001 | 2.63*** |
| *GRW* | 0.002 | 0.33 | 0.010 | 2.57** |
| *ROI* | 0.005 | 0.63 | −0.003 | −0.62 |
| *LAR* | −0.000 | −0.09 | −0.001 | −2.29** |
| *FOR* | 0.000 | 0.61 | 0.001 | 1.49 |
| *absTAccl* | −0.130 | −4.67*** | −0.077 | −4.40*** |
| *Constant* | −0.511 | −2.18** | −0.162 | −0.94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2$ | 0.056 | | 0.034 | |
| F-value | 7.228*** | | 7.131*** | |
| N | 3,423 | | 6,116 | |

1) *HQCSal*=1 if the ratio of quality control personnel costs to total personnel costs is at or above the median, and 0 otherwise.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Table 5〉 Analysis Results Considering Quality Control Capability (continued)

| [Panel B] Results Considering the Proportion of Dedicated Quality Control Staff | | | | |
|---|---|---|---|---|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QCAHR*** | **0.302** | **1.63** | **−0.380** | **−1.71*** |
| ***HQCExc*** | **0.001** | **0.09** | **−0.002** | **−0.35** |
| ***QCAHR*HQCExc*** | **−0.029** | **−0.11** | **0.066** | **0.26** |
| *SIZE* | 0.027 | 2.24** | 0.013 | 1.44 |
| *LEV* | 0.103 | 3.52*** | 0.088 | 4.47*** |
| *LIQ* | 0.002 | 2.09** | 0.001 | 2.63*** |
| *GRW* | 0.002 | 0.39 | 0.010 | 2.58*** |
| *ROI* | 0.005 | 0.56 | −0.003 | −0.63 |
| *LAR* | 0.000 | 0.04 | −0.001 | −2.29** |
| *FOR* | 0.000 | 0.63 | 0.001 | 1.50 |
| *absTAccl* | −0.131 | −4.62*** | −0.077 | −4.42*** |
| *Constant* | −0.494 | −2.11** | −0.160 | −0.92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2$ | 0.050 | | 0.034 | |
| F-value | 6.227*** | | 7.115*** | |
| N | 3,423 | | 6,116 | |

1) *HQCExc*=1 if the ratio of dedicated quality control staff to total quality control staff is at or above the median, and 0 otherwise.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품질관리 인건비 비중(*HQCSal*)을 상호작용 변수로 포함한 <Table 5>의 [Panel A]의 결과부터 살펴보면, Big4의 경우 *QCAHR*은 <Table 4>와 일관되게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호작용항(*QCAHR*HQCSal*)의 계수 값은 −1.044(t=−3.24, p<0.01)로 인적역량이 우수한 환경에서 검토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Big4의 우수한 인적 역량과 집중적인 품질관리 검토가 결합될 때, 피감사기업의 감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non-Big4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아직 인적 역량과 품질관리 자원 투입 간에 유기적인 결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율(*HQCExc*)을 고려한 [Panel B]의 분석 결과, 모든 그룹에서 상호작용항의 계수 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외형적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품질 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Panel A]의 결과와 연계하면 품질관리 검토 자원의 투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내실 있는 운영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4. 추가분석

### 가. 초도감사의 영향

이영한과 장금주(2016)에 따르면 초도감사 시 감사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높은 정보비대칭성에 대응하여 더 많은 품질관리 검토 시간을 투입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분석 결과 중 Big4의 *QCAHR*과 *PMADA* 간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은 초도감사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초도감사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거나, 초도감사 표본을 제외한 후 분석을 재실시하였다. <Table 6>의 열 (1)과 (2)는 초도감사(*FIRST*)를 추가로 통제한 분석결과이며, 열 (3)과 (4)는 초도감사 표본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Table 6〉 Analysis Results Considering First-Year Audits

| Variables | Control for FIRST | | | | Excl. First-Year Audits | | | |
|---|---|---|---|---|---|---|---|---|
| | (1) Big4 | | (2) non-Big4 | | (3) Big4 | | (4) non-Big4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QCAHR*** | **0.287** | **1.91**$^{*}$ | **−0.342** | **−2.45**$^{**}$ | **0.263** | **1.30** | **−0.353** | **−2.01**$^{**}$ |
| ***FIRST*** | **0.001** | **0.20** | **0.002** | **0.76** | | | | |
| *SIZE* | 0.026 | 2.24$^{**}$ | 0.013 | 1.44 | 0.013 | 0.81 | 0.019 | 1.46 |
| *LEV* | 0.103 | 3.52$^{***}$ | 0.088 | 4.47$^{***}$ | 0.107 | 3.03$^{***}$ | 0.101 | 3.65$^{***}$ |
| *LIQ* | 0.002 | 2.09$^{**}$ | 0.001 | 2.62$^{***}$ | 0.002 | 2.06$^{**}$ | 0.001 | 1.87$^{*}$ |
| *GRW* | 0.002 | 0.39 | 0.010 | 2.58$^{***}$ | 0.001 | 0.13 | 0.011 | 2.21$^{**}$ |
| *ROI* | 0.005 | 0.56 | −0.003 | −0.64 | 0.008 | 1.00 | 0.001 | 0.12 |
| *LAR* | 0.000 | 0.05 | −0.001 | −2.29$^{**}$ | −0.000 | −0.12 | −0.001 | −1.65$^{*}$ |
| *FOR* | 0.000 | 0.64 | 0.001 | 1.48 | 0.000 | 0.72 | 0.001 | 1.58 |
| *absTAccl* | −0.131 | −4.62$^{***}$ | −0.078 | −4.43$^{***}$ | −0.134 | −3.78$^{***}$ | −0.092 | −3.86$^{***}$ |
| *Constant* | −0.494 | −2.10$^{**}$ | −0.163 | −0.94 | −0.229 | −0.71 | −0.266 | −1.13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2$ | 0.050 | | 0.034 | | 0.048 | | 0.041 | |
| F-value | 6.590$^{***}$ | | 7.636$^{***}$ | | 4.685$^{***}$ | | 5.135$^{***}$ | |
| N | 3,423 | | 6,116 | | 2,436 | | 4,225 | |

1) *FIRST*=1 if the audit is a first-year audit, and 0 otherwise.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초도감사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Big4의 유의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초도감사 표본을 제외한 뒤 수행한 분석(열 (3))에서는 Big4의 *QCAHR* 계수 값이 유의성을 상실하여 앞서 관찰된 Big4의 품질관리 검토시간과 재량적발생액 간의 양(+)의 관련성이, 계속감사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 초도감사와 같이 감사위험과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에서 품질관리 자원이 보다 집중적으로 배분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앞선 Big4의 결과와 대조적으로, non-Big4의 음(−)의 관련성은 초도감사 변수 통제 및 표본 제외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되었다. 이는 non-Big4의 경우 품질관리 자원의 투입이 특정 위험 상황에 국한된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 절차의 충실성을 제고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 나.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을 이용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분석을 재실시하였으며,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분석결과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Table 7〉 Analysis Results Using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ADA_{i,t} = \beta_0 + \beta_1 QCAH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LIQ_{i,t} + \beta_5 GRW_{i,t} + \beta_6 ROI_{i,t} + \beta_7 LAR_{i,t} + \beta_8 FOR_{i,t} + \beta_9 abs\,TAccl_{i,t} + YD + \epsilon_{i,t}$$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QCAHR*** | **0.315** | **2.05**** | **−0.308** | **−2.18****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2$ | 0.049 | | 0.033 | |
| F-value | 7.634*** | | 7.885*** | |
| N | 3,423 | | 6,116 | |

1) *ADA*=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 다. 다양한 측정치를 이용한 분석결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품질관리 검토시간 측정치를 적용하여 실증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였다. <Table 8>의 [Panel A]는 배길수 등(2015)의 방식을 따라 검토시간 비중의 제곱근(*sqrtQCAHR*)을, [Panel B]는 이영한과 장금주(2016)의 정의에 근거하여 검토시간의 자연로그값(*lnQCAH*)을 사용하였다. 또한 [Panel C]에서는 분·반기 검토 시간을 포함하여 검토시간 비중을 재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 분석결과의 강건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Table 8〉 Analysis Results Using Alternative Measures

[Panel A] Analysis Results Using the Square Root of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PMADA_{i,t} = \beta_0 + \beta_1 sqrtQCAH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LIQ_{i,t} + \beta_5 GRW_{i,t} + \beta_6 ROI_{i,t} + \beta_7 LAR_{i,t} + \beta_8 FOR_{i,t} + \beta_9 absTAccl_{i,t} + YD + \epsilon_{i,t}$$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sqrtQCAHR*** | **0.090** | **2.00**** | **−0.100** | **−2.35****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2$ | 0.050 | | 0.034 | |
| F-value | 7.022*** | | 8.171*** | |
| N | 3,423 | | 6,116 | |

1) *sqrtQCAHR*=square root of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Panel B] Analysis Results Using the Natural Logarithm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PMADA_{i,t} = \beta_0 + \beta_1 \ln QCAH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LIQ_{i,t} + \beta_5 GRW_{i,t} + \beta_6 ROI_{i,t} + \beta_7 LAR_{i,t} + \beta_8 FOR_{i,t} + \beta_9 absTAccl_{i,t} + YD + \epsilon_{i,t}$$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lnQCAH*** | **0.009** | **2.09**** | **−0.006** | **−1.77***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2$ | 0.050 | | 0.033 | |
| F-value | 7.122*** | | 7.824*** | |
| N | 3,423 | | 6,116 | |

1) *lnQCAH*=natural logarithm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Table 8〉 Analysis Results Using Alternative Measures (continued)

[Panel C] Analysis Results Using the 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Based on Total Hours

$$PMADA_{i,t} = \beta_0 + \beta_1 All\,QCAH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LIQ_{i,t} + \beta_5 GRW_{i,t} + \beta_6 ROI_{i,t} + \beta_7 LAR_{i,t} + \beta_8 FOR_{i,t} + \beta_9 abs\,TAccl_{i,t} + YD + \epsilon_{i,t}$$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AllQCAHR*** | **0.432** | **2.19**** | **−0.432** | **−2.39****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 Adj. $R^2$ | 0.051 | | 0.034 | |
| F-value | 7.269*** | | 8.027*** | |
| N | 3,423 | | 6,116 | |

1) *AllQCAHR*=proportion of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based on total hours (audit plus quarterly and semiannual reviews).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 라. 총 감사시간을 통제한 분석결과

총 감사시간은 피감사기업의 업무 복잡도와 감사인의 총체적 노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QCAHR*과 *PMADA*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ll et al. 2001). 이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총 감사시간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재실시하였으며,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된 결과가 대체로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Table 9〉 Analysis Results Controlling for Total Audit Hours

$$PMADA_{i,t} = \beta_0 + \beta_1 QCAH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LIQ_{i,t} + \beta_5 GRW_{i,t} + \beta_6 ROI_{i,t} + \beta_7 LAR_{i,t} + \beta_8 FOR_{i,t} + \beta_9 abs\,TAccl_{i,t} + \beta_{10} \ln AllAH_{i,t} + YD + \epsilon_{i,t}$$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QCAHR*** | **0.293** | **1.95*** | **−0.330** | **−2.36****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Included | | Included | |

〈Table 9〉 Analysis Results Controlling for Total Audit Hours (continued)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Adj. $R^2$ | | 0.050 | | 0.034 |
| F-value | | 6.591*** | | 7.626*** |
| N | | 3,423 | | 6,116 |

1) *lnAllAH*=natural logarithm of total audit hours (audit plus quarterly and semiannual reviews).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 마.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용한 분석결과

<Table 4>의 Big4 표본에서 관찰된 *QCAHR*과 *PMADA* 간 양(+)의 관련성이 낮은 감사품질을 의미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활용된 계속기업 불확실성 의견(GC)을 이용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Francis and Yu 2009).

〈Table 10〉 Analysis Results Using Going-Concern Opinions

$$GC_{i,t} = \beta_0 + \beta_1 QCAHR_{i,t} + \beta_2 SIZE_{i,t} + \beta_3 LEV_{i,t} + \beta_4 LIQ_{i,t} + \beta_5 GRW_{i,t} + \beta_6 ROI_{i,t} + \beta_7 LAR_{i,t} + \beta_8 FOR_{i,t} + \beta_9 abs\,TAccl_{i,t} + YD + \epsilon_{i,t}$$

| Variables | (1) Big4 | | (2) non-Big4 | |
|---|---|---|---|---|
| | Coef. | t-value | Coef. | t-value |
| ***QCAHR*** | **38.133** | **1.74*** | **−19.339** | **−1.38** |
| *Year Dummies* | Included | | Included | |
| *Firm Fixed* | Not included | | Not included | |
| Pseudo $R^2$ | | 0.307 | | 0.205 |
| $\chi^2$ | | 116.98*** | | 107.04*** |
| N | | 3,423 | | 6,116 |

1) *GC*=1 if the firm receives a going-concern opinion, and 0 otherwise. See the notes to <Table 2> for other variable definitions.
2) ***, **, and * denote significance at the 1%, 5%, and 10% levels, respectively (two-tailed).
3) t-values are calculated using standard errors clustered by firm.

분석결과, <Table 10>의 열 (1)에서 *QCAHR*이 높을수록 *GC*가 보고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품질관리 업무 비중이 높은 감사에서 재량적발생액 수준은 높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식별·보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Big4 표본의 결과는 낮은 감사품질의 증거라기 보다는 감사품질 대용치의 특성과 피감사기업의 위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non-Big4 표본에서는 *GC*를 이용한 추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Table 4>의 *QCAHR*과 *PMADA* 간 음(-)의 관련성과 연계하여 해석하면, non-Big4에서 품질관리 업무 비중이 높을수록 재량적발생액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효과가 GC와 같은 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감사판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Ⅴ. 결 론

본 연구는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과 감사품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회계법인 규모별로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이 갖는 의미가 다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Big4의 품질관리 검토시간 비중은 초도감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자원을 집중하는 위험 대응의 성격이 강한 반면, non-Big4는 투입된 검토시간이 전반적인 감사 절차를 보완하여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ig4의 경우 인적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 검토시간 투입이 감사품질을 유의하게 제고시키고 있어, 회계법인이 품질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인력의 외형적 확충보다 숙련된 전문가 확보와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신외감법 도입 후 강화된 품질관리 제도가 회계법인 규모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품질관리를 위해 인적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품질관리의 절대적 투입시간에서 나아가, 전체 감사 자원 중 검토 업무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을 활용하여 품질관리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차별성을 지닌다.

다만,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품질관리 역량을 인건비 비중과 전담인력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는 품질관리 인력의 실질적인 개별 전문성을 완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세분화된 인적 자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보완하여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통제하였으나, 회계법인의 조직 문화나 개별 감사 파트너의 성향 등 관찰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품질관리가 개별 감사 현장에서 구

현되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The study in this manuscript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Guidelines set forth by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AI 사용 공시] 본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AI Disclosure] No generative AI tool was used in the preparation of this manuscript.

[이해상충 공개] 참여 저자 모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기타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함.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s of interest associated with this manuscript.

# REFERENCES

Bae, G. S., Lee, J. E., Rho, J., and Choi, S. U. 2015. Auditors' differential responses to audit risks through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Korean Accounting Review* 40 (6) : 81－117. [Printed in Korean]

Becker, C. L., DeFond, M. L., Jiambalvo, J., and Subramanyam, K. R.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1) : 1－24.

Bell, T., Doogar, R., and Solomon, I. 2008. Audit labor usage and fees under business risk audi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 (4) : 729－760.

Bell, T., Landsman, W., and Shackelford, D. 2001. Auditors' perceived business risk and audit fees : Analysis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 (1) : 35－43.

Chaney, P. K., Jeter, D. C., and Shivakumar, L. 2004. Self-selection of auditors and audit pricing in private firms. *The Accounting Review* 79 (1) : 51－72.

Che, L., Hope, O.-K., and Langli, J. C. 2020. How Big-4 firms improve audit quality. *Management Science* 66 (8) : 3552－3572.

Cho, Y., Kim, M.-H., and Jeon, K.-A. 2022. The effect of standard audit hours policy on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Review* 47 (2) : 239－277. [Printed in Korean]

DeAngelo, L. E.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3) : 183－199.

DeFond, M., and Zhang, J. 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 (2－3) : 275－326.

Francis, J. R. 2011.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audit quality.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0 (2) : 125－152.

Francis, J. R., and Yu, M. D. 2009. Big 4 office size and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4 (5) : 1521－1552.

Hwang, I. T., Kang, S. M., and Jung, D.-J. 2009. Does outstanding audit quality of Big 4 audit firms apply to corporations at all sizes? *Korean Management Review* 38 (1) : 1－34. [Printed in Korean]

Kim, B. J. 2023. A literature review on the effects of new external audit law :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112 : 85－108. [Printed in Korean]

Kim, D., Yoo, S. W., and Kim, H. 2025. The effect of auditor registration system and the quality control level of audit service on the audit quality.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67 (1) : 53－96. [Printed in Korean]

Kim, Y. C., Kim, J., and Seol, I. 2024. CEO turnover and the engagement quality reviewer's audit

effort.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39 (1) : 205－224.

Kim, Y.-S., and Jeon, K.-A. 2016. The effects of the position-specific audit hours on audit quality and audit fees. *Korean Management Review* 45 (4) : 1339－1375. [Printed in Korean]

Knechel, W. R., Niemi, L., and Zerni, M. 2013.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licit determinants of compensation in Big 4 audit partnership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1 (2) : 349－387.

Koh, Y. S., and Choi, H. J. 2014. Reconsideration of the audit quality in accordance with auditor size.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15 (2) : 143－177. [Printed in Korean]

Kothari, S., Leone, A., and Wasley, C.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 : 163－197.

Lawrence, A., Minutti-Meza, M., and Zhang, P. 2011. Can Big 4 versus non-Big 4 differences in audit-quality proxies be attributed to client characteristics? *The Accounting Review* 86 (1) : 259－286.

Lee, M., and Hwang, D. S. 2024. Investor response to engagement quality review hours. *Managerial Auditing Journal* 39 (5) : 545－583.

Lee, Y. H., and Jahng, G.-J. 2016. The effects of audit risk and auditor type on engagement quality review hours.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21 (6) : 55－85. [Printed in Korean]

Lennox, C. S. 1999. Audit quality and auditor size : An evaluation of reputation and deep pockets hypothese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26 (7－8) : 779－805.

Ra, K. 2024. Do the personnel composition, experience level, and personnel expenses of accounting firm's quality control office enhance audit quality? *Korean Accounting Journal* 33 (2) : 35－70. [Printed in Korean]

Ryu, S. W., Lee, J.-C., Kim, E. G., and Han, S. 2015. Effect of total audit hour and internal quality assurance hour on audit quality (discretionary accruals). *Korean Accounting Review* 40 (4) : 213－246. [Printed in Korean]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22. Improv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2019－2020 quality control inspections. Press release (January 25, 2022). [Printed in Korean]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2025. Improv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2024 quality control inspections. Press release (June 2, 2025). [Printed in Korean]

Seo, K.-W., and Yi, J.-K. 2025. The effects of change in engagement quality review hours by

the introduction of listed company auditor registration on audit quality.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67 (2) : 149－187. [Printed in Korean]

Song, J.－W., and Kim, Y.－S. 2021. The relation between engagement quality control review hours and auditor changes :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and Management* 22 (5) : 1269－1287.

Sug, W.－J., and Park, K. 2021. An influence of introduction of full－time quality control personnel system on audit quali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 (9) : 75－83. [Printed in Korean]

## 국내 참고문헌

고윤성 · 최현정. 2014. “감사인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의 재고찰”.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2호 : 143－177.

김동현 · 유승원 · 김현정. 2025.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이 등록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수준을 중심으로”.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7권 제1호 : 53－96.

김범준. 2023. “신외부감사법 도입 효과에 관한 문헌 연구 :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112집 : 85－108.

김용수 · 전규안. 2016. “직급별 감사시간이 감사품질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5권 제4호 : 1339－1375.

라경흠. 2024. “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의 인력 비중. 경력 및 인건비 예산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가?”. 회계저널. 제33권 제2호 : 35－70.

류승우 · 이종천 · 김응길 · 한승수. 2015. “감사시간과 내부심리시간이 감사품질(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0권 제4호 : 213－246.

배길수 · 이재은 · 노준화 · 최승욱. 2015. “품질관리검토시간을 통한 감사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차별적 대응”. 회계학연구. 제40권 제6호 : 81－117.

서계원 · 이재경. 2025.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따른 품질관리 감사시간 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친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67권 제2호 : 149－187.

석완주 · 박경호. 2021.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9호 : 75－83.

이영한 · 장금주. 2016. “감사실패에 따른 위험요인과 감사인 규모가 감사인의 업무품질관리검토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와 정책연구. 제21권 제6호 : 55－85.

조연주 · 김민희 · 전규안. 2022.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47권 제2호 : 239－277.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2022.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보도자료(2022.1.25.).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2025. “2024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보도자료(2025. 6.2.).

황인태・강선민・정도진. 2009.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경영학연구. 제38권 제1호 : 1－34.